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유년부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9월 교육 내용	04
❁ 9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9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9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9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5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3
❁ 위드 포토	54
❁ 9월 추천도서	56
❁ 9월 위드스티커	57
❁ 9월 교육활동지	59



9월 교육내용
성령의 열매 1



암송
구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첫째주♥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0)
*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둘째주♥
“희락”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6)
*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셋째주♥
“화평”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넷째주♥
“오래 참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12)
* 오래 참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에요.

실천
내용

1. 성령의 열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기억해요.
2.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Memory Time



사랑

첫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0

♥ 오늘의 주제 : 사랑 ▷요한1서 4:7-21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 말씀 나눔

①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요? (11,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 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 지기 때문이에요.

② 진정한 사랑은 누가 어떻게 보여 주셨나요? (10절)

★ 교육활동 - “사랑 팝업 카드”

준비물: 나무젓가락, 색지 2장, 필기도구

- ① 위드 활동지에 그려진 카드를 오려 사랑 팝업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 ② 완성된 카드에 자신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보세요.(사과하고 싶었던 일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도 좋아요.)
- ③ 카드를 직접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라고 말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첫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1서 4:10

♥ 오늘의 포인트 :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사랑 ▷요한1서 4:7-21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요14:17)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던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될 거예요.



토론하기

Q 1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흘러보낸 적이 있나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흘러 보내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출애굽기 28:1-43 “하나님의 대리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2.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3.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4.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받이와 예봇과 겹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생략)

· + 말씀을 3번
·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영화롭다**: 몸이 귀하게
· 되어 이름이 세상에
· 빛날만하다

· **예복**: 의식을 치르거나
·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 입는 옷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나요? (1절)

스 스 스

2.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예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4절)

- ① 줄무늬 속옷
- ② 예복
- ③ 무색모자
- ④ 띠

with
생각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사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거룩한 행위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with
결심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29:1-46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43.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44.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46.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거기(회막 어귀)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곳이 어떤
곳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나요? (43절)

한 곳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46절)

“...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그들의 임을 알게 될 것이다. ...”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막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
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
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참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0:1-38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13.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다. 이 반 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14.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15. 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 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 줄 것이다."

(생략)

- + 말씀을 3번
•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 속전: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 세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 게라: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with
관찰

1.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로 얼마를 바쳐야 하나요?
(13절)



세겔

2. 하나님께서 각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얼마씩 내라고 하셨나요? (15절)

- ① 부자 - 1 세겔 / 가난한 사람 - 반 세겔
- ② 부자, 가난한 사람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반 세겔
- ③ 부자 - 1 세겔 / 가난한 사람 - 안내도 됨
- ④ 부자 - 2 세겔 / 가난한 사람 - 1 세겔

with
생각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해 번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돈으로 예물을 드리며 회개하는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20세 이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동일한 액수로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야 했어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지 않았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속전’을 드리게 하신 이유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1:1-18 “하나님께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14.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겨레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15. 옛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옛세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18.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쓰신 증거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

“안식일은 너희에게 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

2.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은 무엇인가요? (16-17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이며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인 7일 쯤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식일에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과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약속인 ‘안식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Memory Time



희락

둘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오늘의 주제 : 희락 ▷사도행전 3:1-10

♥ 오늘의 포인트 :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 말씀 나눔

1.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하여

2.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나요?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 교육활동 -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위드 활동지에 있는 그림을 종이컵에 붙인 후, 색종이를 접어 스프링을 만들어 밑에 붙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를 외치며 그림을 붙인 컵이 튀어오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오늘의 포인트 :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이에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희락 ▷사도행전 3:1-10

성령의 열매, ‘희락’은 기쁨(rejoice)을 말해요. 이 기쁨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웃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말해요. 참된 기쁨은 일시적으로 기쁜 감정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 생기는 영원한 기쁨인 것이에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앳은뱅이는 사람들이 던져 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걷게 하고 뛰게 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앳은뱅이가 사람들에게 동전을 얻는 기쁨을 위해 성전을 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는 더 이상 동전 몇 푼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진정한 희락이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들어오실 때 시작돼요. 한순간 사라지는 기쁨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애쓰길 바라요.



Q 1 우리 가족은 참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Pray 우리 가족이 삶에서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2:1-35 “하나님만 섬겨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 오시오."
3.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 왔다.
4.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생략)
9.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 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11.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시니까? (생략)
13.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4.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거푸집 :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

with
관찰

1.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때 아론은 백성들의 금고리들을 녹여 신을 만드는데, 무슨 모양의 신을 만들었나요?(4절)



2.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백성이 타락하였다.(7절)
- ②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10절)
- ③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5절)
- ④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9절)

with
생각

백성들은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물려가 말했어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론은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고 “이 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20:4-5)라고 십계명의 2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예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 줄 모세가 눈 앞에 없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이예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습이 매우 못마땅하셨어요. “백성을 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10절)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예요.

아론과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만약,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출애굽기 33:1-23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구별된 사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생략)

12.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 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15.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 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16.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17.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 주마."

18. 그 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19.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3절)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고 뜻을 돌아키셨나요?(12절)

2.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내가 친히 너와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14절)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 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15절)

“주님께서 우리와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16절)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로 인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3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께서 앞장서 가지 않으시려거든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 것이예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어요. 다른 말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로써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구별된 사람이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4:1-35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주겠다.
2.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 산으로 올라 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3. 그러나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의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산기슭에서 양과 소에게 풀을 뜯기고 있어도 안 된다."
4.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5. 그 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싸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6.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7.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9.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새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시기 위해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셨나요? (2절)

2.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6절)

“ 주, 나 주는 롭고 로우며, 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과 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원래 판에 있던 말씀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 넣을 것이다.”(1절)
지난번,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이 새겨주신 증거판을 깨뜨려버린 적이 있었어요.(출32:19)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돌판 위에 처음 판에 새겨주신 언약을 다시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새겨 주신 언약의 내용을 새 돌판에 똑같이 새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9절)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자(출33:4-6),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처음 판에 새겨주신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6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긋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5:1-35 “하나님께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0.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21.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 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 왔다.
22.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 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23.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 왔다.
24.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 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 왔다.
25.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 왔다.
26.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27.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받이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28.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 왔다.
29.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위의 본문에 나오는 물품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29절)

--	--	--	--	--	--

십여 하는 이스라엘 자손

2.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 ①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금붙이를 주님께 바쳤다.(22절)
- ②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예물로 가져왔다.(24절)
- ③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지고 왔다.(24절)
- ④ 지도자들은 예물을 가져오는 일에서 제외되었다.(27-28절)

with
생각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가져오도록 했어요.(5절) 이 말에 마음이 감동 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는 남녀 구별이 없었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은 그 나무를 가지고 오는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어요.(29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혹, 기술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오고,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왔어요.(25-26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길 원할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로 드리려고 하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기로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 받아 주실 것이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Memory Time



화평

셋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14

♥ 오늘의 주제 : 화평 ▶에베소서 2:14-22, 마태복음 5:9

♥ 오늘의 포인트 :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예요.

★ 말씀 나눔

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14절)

중간에 막힌 ○을 자기 ○○로 허시고

②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9절)

○○○의 ○○

★ 교육활동 - “화평 말씀 찾기”

성경에서 아래에 있는 화평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 | | | | |
|------------|-----------|------------|-------------|
| -야고보서 3:18 | -마태복음 5:9 | -시편 34:14 | -베드로전서 3:11 |
| -욥기 25:2 | -잠언 12:20 | -골로새서 1:20 | -히브리서 12:14 |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셋째주

-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 암송구절 :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행전 16:25
- ♥ 오늘의 포인트 : 화평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화평 ▶에베소서 2:14-22, 마태복음 5:9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 이예요. 한글 성경 '화평'으로 번역된 원어 샬롬(Shalom)에는 다섯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평화로움 ② 나의 마음이 평화로움 ③ 정의 ④ 차별하지 않음 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조화로움.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던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은 그저 누군가와 다투지 않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온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여 평화로운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을 닮아 세상에 화평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예배자)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Q 1 우리 가족은 삶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나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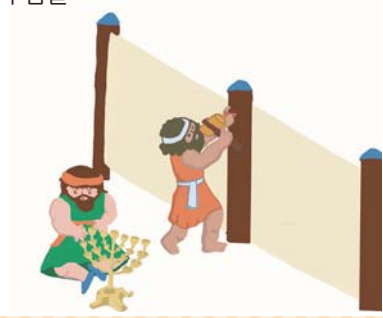
with
 말씀

출애굽기 36:1-38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러므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모았다.
3.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 왔다.
4.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5.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6.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총명: 영리하고 재주가 있음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 는 거룩한 곳
 진중: 부대의 안



with
관찰

1. 모세를 도와 성소에 필요한 것을 만든 사람은? (2절)

“모세는, 과 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

2.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7절)

- ① 모세는 혼자서 성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
- ②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를 돕지 않았다.
- ③ 많은 백성들이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와 모세에게 주었다.
- ④ 모세의 명령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물품을 가져왔다.

with
생각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만들기 위해 기술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그중에서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도와 주었지요. 성소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도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 모세에게 주었어요. 물품들이 너무 많아지자 모세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이미 모인 재료들이 너무 많아 그것들로 성소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많은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은 그 재능을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곳에 열심히 사용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7:1-29 “언약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브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두 자 반, 너비가 한 자 반, 높이가 한 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2.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3.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았다.
4.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5.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였다.
6.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두 자 반이요 너비가 한 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7.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잡게 하였다.
8.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었다.
9.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궤 : 물건을 넣도록
 네모나게 만든 그릇



with
관찰

1. 언약궤의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1-3절)

- ① 아카시아 나무 ② 다이아몬드 ③ 순금 ④ 금고리

2. 궤의 크기는? (1절)

“ ... 길이가 , 너비가 ,
높이가 인 궤를 만들었다.”

with
생각

모세와 사람들과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두 자 반 (약 114cm), 높이와 너비는 각각 한 자 반(약 68cm)으로 된 상자로, 그 위에는 순금판으로 덧씌웠어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두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조심히 다루어졌어요.

with
결심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예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길 기도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8:1-31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1.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22.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23.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로 수를 놓는 일도 하였다.
24.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여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이십구 달란트 칠백삼십 세겔이다.
25.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 천칠백칠십오 세겔이다.
26. 스무 살이 넘어서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 세겔 곧 한 베가씩 낸 셈이다.
27. 성소 밀받침과 휘장 밀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백 달란트가 들었으니, 밀받침 백 개에 백 달란트 곧 밀받침 한 개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28. 천칠백칠십오 세겔을 들어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29. 흔들여 바친 놋쇠는 칠십 달란트 이천사백 세겔인데,
30. 이것으로 회막 어귀의 밀받침과 놋제단과 이에 딸린 놋그물과 기타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31. 울타리 사면의 밀받침과 뜰 정문의 밀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명세서 : 물품이나 금액을 자세하게 적은 문서

with
관찰

1. 아론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21절)

2.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각각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22-23절)

브살렐 - 지파

오홀리압 - 지파

with
생각

성막을 만드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도와가며 만들었지요. 유다 지파 사람인 브살렐, 단 지파 사람인 오홀리압을 비롯해, 레위 사람들도 도와주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 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서로 함께 도와가며 한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기를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변 이웃들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39:1-43 “명하신 그대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 (생략)
32.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33.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 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 다지와 기둥과 밀받침과,
 34.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35. 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36.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37.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38.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39.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40.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밀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41.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42.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43.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with
관찰

1.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닌 것은? (33-41절)
① 증거궤 ② 순금 등잔대 ③ 놋제단 ④ 운동화

2. 모세가 모든 일을 점검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준 것은? (43절)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

그들에게 주었다.”

with
생각

드디어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했지요. 성막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명하신 그대로 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 주었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길 다짐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길 기도해요.
나의 기도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Memory Time



오래 참음

넷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야고보서 1:12

♥ 오늘의 주제 : 오래 참음 ▷야고보서 1:12, 로마서 5:3-5, 골1:11

♥ 오늘의 포인트 : 오래 참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예요.

★ 말씀 나눔

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12절)

○○을○○자

② 시련을 견디어 낸 자에게 주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12절)

○○의○○○○

★ 교육활동 - “말씀 완성하기”

신문지에서 글자들을 하나씩 찾아서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암송구절 :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포인트 : 오래 참음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오래 참음 ▷야고보서 1:12, 로마서 5:3-5, 골1:11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반드시 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이 소망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오래 참아야 해요.

그러나 오래 참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사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기도 해요. 불안하고 답답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과 더욱 함께해야 해요. 우리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오래 참는 것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하여 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 매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오래 참도록 해요. 더하여 오래 참음의 성령열매를 통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요.



Q 1 우리 가족은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하나요?

Pray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오래 참음의 기쁨을 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출애굽기 40:1-38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행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2.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3.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생략)
28.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29.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0.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31.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32.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33.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는가넌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34. 그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35.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36.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걸히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37. 그러나 구름이 걸히지 않으면, 걸힐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38.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 앞을 밝혀 주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

곧

2.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을 때 무엇이 회막을 덮고, 무엇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나요? (34절)

회막에 이 머물고, 주님의 이 성막에 가득참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회막 안에는 증거궤를 두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을 짓는 일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가운데 함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with
결심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걷히면 걷고, 구름이 머무르면 길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20. .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레위기 1:1-17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3.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4.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5.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6.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7.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8.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여 놓아야 한다.
9.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속죄: 대신하여 지은
 죄를 없앴

with
관찰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번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의 어디에 손을 얹어야 하나요? (4절)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번제물의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2.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누가 불에 태우나요? (7-8절)

- ① 모세의 아들들 ② 아론의 제사장들
- ③ 여호수아의 친구들 ④ 갈렙의 동생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해주신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들을 모두 제단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인데,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의 번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2:1-16 “하나님께 곡식제물(소제)을 드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나 주에게 곡식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2.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 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3. 곡식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5. 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제물이다.
7. 네가 바치는 곡식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8. 이렇게 하여 곡식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 갈 것이다.
9.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 곡식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부어서 드려야 하나요? (1절)

2. 곡식제물을 다 드리고 남은 것은 누가 가져가나요? (3절)

과 그 아들들

with
생각

만약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곡식 가루를 사용해야 해요.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 가면, 그들이 제단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예요. 제물로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어요. 소제의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제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레위기 3:1-17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2.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3.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4.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5.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 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붙여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6.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7.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8.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9. 제물을 가져 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 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10.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계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 낼 때에 함께 떼어 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 와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제물로 바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아론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하나요? (5절)

2.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어떤 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나요? (5절)

...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해요. 이 화목제물은 번제와 함께 불살라서 제물로 드려져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졌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죽음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고, 또 서로서로의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with
결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 위에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는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화해하는 예물이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해요.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화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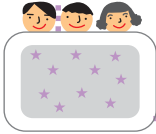
말씀 <야고보서 3:2-10, 새번역>

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3.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4.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5.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한 큰 숲을 태웁니다.
6.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계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생략)
9.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10.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OO아(아), 잘 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의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OO아(아), 우리의 혀는 신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이 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단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밤에도 우리 OO(이)을/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침에도 우리 OO(이)을/를 위해 성실하게 햇빛도 비춰주시니 감사해요. 성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OO(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찬양 <축복해요, 옹기장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앞에 기쁨이라	주의 큰 일 이루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주님 영광 받으시리

사랑하는 OO아(야), 오늘 하루 잘 지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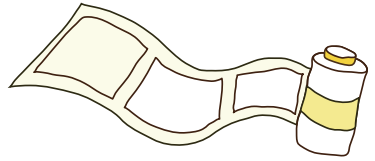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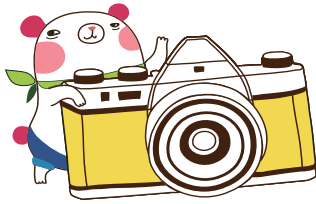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OO(이)을/를 만드셨고, 우리 OO(이)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OO(이)을/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을/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들은/읽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OO(이)을/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OO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잘 자라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나쁜 꿈을 꾸지 않고, 푹 잘 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OO(이)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니트 PHOTO



유년1부



찬양 2-2 김수민

유년1부



2-4 박신희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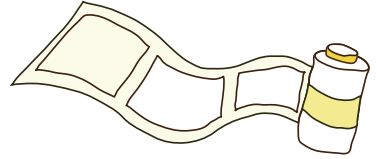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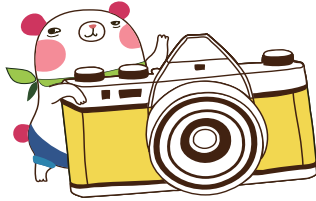
2-8 진희도

유년2부



1-4 노현우

유년부 PHOTO



유년2부



1-14 박예준

유년2부



1-13 박류건

유년2부



1-14 한시울

유년2부



1-15 최유나



9월

제목 : 똑딱똑딱 만들기 성경
글 / 피오나 헤이즈
움긴이 / 서지연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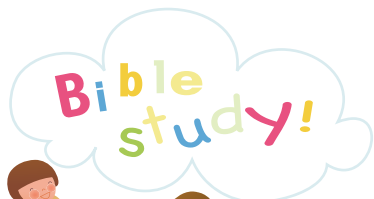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의 귀한 교훈을 담은 성경 이야기와 관련된 50여 개의 만들기 과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먼저 해당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본격적인 만들기 과정은 단계별 일러스트와 간단명료한 지침을 따라 진행이 됩니다.

'아름다운 에덴동산',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등 모형 크기의 작품과 '소년 다윗의 물매', '반짝반짝 공주의 액세서리' 등 성경이야기의 작품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계란케이스, 우유갑, 판지, 요구르트 컵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건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유년부 어린이 혼자서 하기 쉬운 편은 아니니 보호자가 함께 해주시길 추천해요.

실내에서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고 만들기도 해보는 성경 활동북이에요.

9월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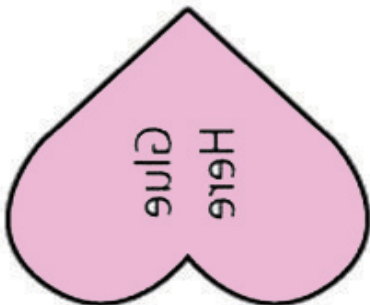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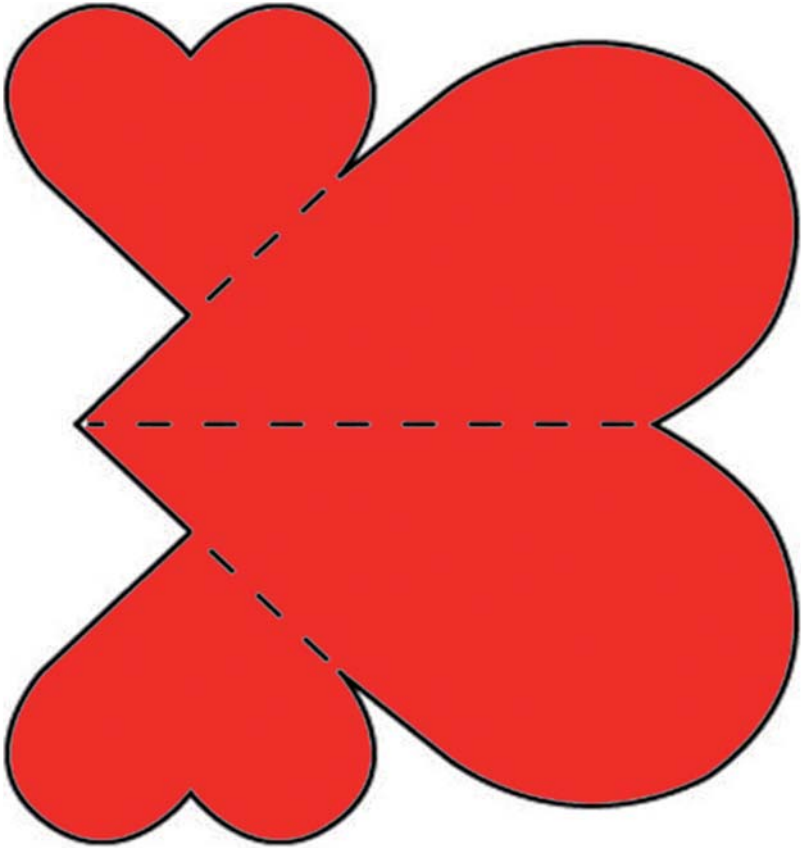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9월 첫째 주

“사랑 팝업 카드”







9월 넷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